

4개 섬이 육지로... 천사 날개 달고 서남권 랜드마크로

전남 신안 압해도~암태도 '천사대교' 개통

전남 신안 섬 관문인 천사대교가 개통됐다. 착공 9년만이다.

총연장 10.8km인 천사대교는 목포와 연륙교로 이어진 신안 압해도와 섬으로 떨어져 있던 암태도를 잇는 왕복 2차로 연도교다. 교량 길이만 7.22km 주탑 최대높이가 195m에 달하는 국내 4번째 규모의 해상 장대교량으로, 사장교와 현수교 공법을 함께 사용한 국내 유일 교량이다.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4개월 동안 공사비 5814억원이 투입됐다. 천사대교는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전남 서남권 경제, 관광 활성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열린 '천사대교' 개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박지원, 서삼석 국회의원, 김정렬 국토부 2차관, 박우량 신안군수와 지역민 등이 참석했다.

◆섬 주민 삶의 질 향상

천사대교 개통으로 암태·자은·암태·팔금·안좌도 등 4개 섬 주민(9천181명)들은 24시간 육지 나들이가 가능해졌다. 암태도와 자은도 등 인근 주요 섬들은 연도교로 연결됐지만 목포와 연륙교로 이어진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교

공사 기간만 9년, 국내 4번째 규모 전남 서남권 경제·관광 활성화 도모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관광상품 구상 물류비 절감, 관광객 500만명 기대

량이 없어 그동안 주민·관광객들의 육지 왕래가 어려웠다.

육지로 나오려면 1시간 이상 배를 타야 하거나 보통 2~3시간 걸려 목포로 나오는 이곳 주민들의 고통도 사라지게 됐다. 서울-암태를 오가는 고속버스가 11일부터 하루 2차례 운행된다.

◆서남권 관광 활성화 촉매제

신안군과 목포시는 천사대교를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천사대교와 오는 5월 3일 개통 예정인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한 단계 더 높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전남도도 관광산업 기반이 약한 서남권 랜드마크로 천사대교를 활용하기로 하고 다양한 연계 관광산업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 중이다.

섬 4곳을 중심으로 연안 교통체계가



4일 오후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총연장 10.8km의 천사대교가 개통했다. 사진은 천사대교의 일부 구간의 모습. /연합뉴스

정비되면서 연간 물류비 666억원을 절감하고, 관광객을 500만명까지 유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사대교를 교두보로 삼아 농수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섬마다 특색있는 볼거리를 연출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광지 등 지역경제 활력 기대

천사대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관광지 숙박, 음식점이 호황을 누릴 것

로 보인다. 암태도 '산샤'는 중국음식을 하는 곳으로 짜장면과 탕수육이 인기가 많다. 후폐지 삼겹살과 나지 비빔밥 등을 파는 팔금도 '돼지촌'과 자은도 '맛나제' 식당도 손님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 해변·여인송 볼거리도 '가득'하다. 자은도는 이국적이면서 아름다운 분계·백길해수욕장과 해변의 경치를 더욱 운치 있게 해주는 울창한 송림, 청자빛 하늘 등 어디를 둘러봐도 고즈

넉하고 아름답다.

분계해변 여인송 숲은 어른 팔로 감싸기 어려울 정도로 굵은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시원한 그늘 아래서 여름 피서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암태 추포도의 옛 노두길과 추포해변도 유명하다.

'예술의 섬' 안좌도에는 수화 김환기 화백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전남 목포=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완도군 "준비 완료"

내일 개막... 5월 6일까지 진행

'2019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를 이틀 앞두고 행사 준비에 전 주민이 나서서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2019청산도 슬로걷기축제가 오는 6일부터 5월 6일까지 '느림은 행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힐링·나눔·공정·가치있는 여행 등 4

가지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는 청산도 슬로길 11코스를 완보하는 '청산안보'와 '청산도 힐링토크', '유채꽃 정원 버스킹', '뽕바위 기 체험' 등 50여 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완도군 청산면은 개막 사흘 앞두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서편제 세트장 일원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고 행사 기간 만개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다. /전남 완도=이제건 기자 wando1106@

남원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팔 걷어

3월 말 전체 21%인 1057억원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도모

남원시가 지역경제 활력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5060억원 가운데 3월말까지 1057억원(21%)을 집행했다. 또, 6월말

까지 실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SOC 사업,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사업에 2,812억원(55.5%)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원활한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부서별 신속집행 로드맵을 작성하고 사전절차이행 등을 진행하는 한편, 매월 부서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운영해 실과소, 읍면동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김동규 부시장을 주재로 3월말 기준 각 부서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집행실적 제고방안에 대해 토론과 해결방안을 논의할 통해 재정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

광주광역시 북구

"민방위 문의, 카톡하세요"

민방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광주시 북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광역시 북구 민방위'를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북구에 따르면 "3월부터 전국에 있는 북구 민방위 대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광주시 최초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광역시 북구 민방위'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 민방위'는 민방위 훈련·교육일정, 훈련 참석 가능여부, 비상대피시설 현황 등 민방위 대원들이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카톡 플러스 친구 기능을 통해 공지사항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검색, 자동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응답 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담당자와 1:1 채팅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광주=봉채영 기자

함평 엑스포 공원에 전남교육박물관

최종 입지로 확정... 100억 투입

전남교육박물관(가칭)이 함평 엑스포공원에 건립된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남교육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함평 엑스포 공원이 최종 입지로 확정됐다.

박물관 부지는 1만4000㎡, 건축 총면적은 5000㎡ 규모로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러진 현장실사, 두 차례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광역교통망(광주무안공항, 광주송정역 등)이 인접한 지리적 장점과 함께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우수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적극 어필했다.

특히 최근 화제를 모은 황금박쥐 조형물과 1,565종 6,324점의 생활유물 무상임대 및 보험료 지원 등도 약속했다.

그 결과 평가분야 모두에서 고루 높은



이윤행 함평군수

평가를 받으며 이번에 최종 입지로 선정됐다.

다만 자연생태관 포함 여부 등 세부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협상여지가 남아 있으나 이윤행 군수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의지가 있는 만큼 조만간 원만히 해결될 것을 보인다.

이윤행 군수는 "전남교육박물관의 함평 건립은 전남교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박물관 건립사업은 사라져 가는 전남 교육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교육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전남 함평=나성주 기자 nsj398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3 | 해질 / 1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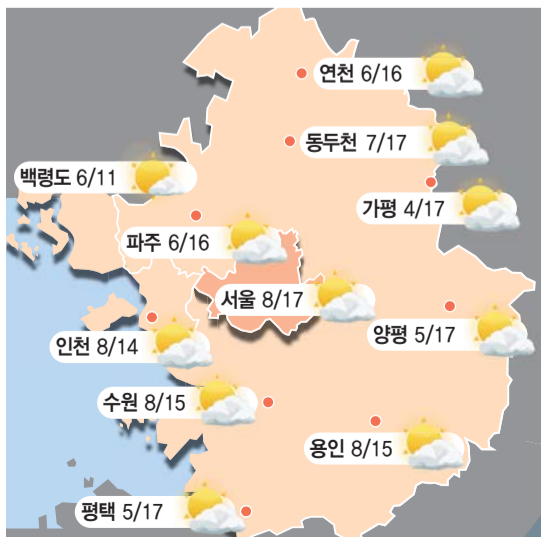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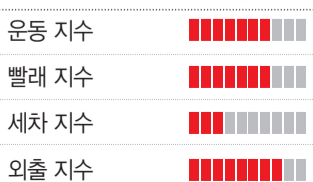
4월

5월 (금)

음력: 3월 1일

수도권 날씨

8~17°C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